Shopping p/19

더운 한가위 내복특수 실종

metro

Sports p/20

박지성 이번엔 최악의 평점

전국 35개 대학 재정지원 제한

NEWS p/02

일본산 수산물 믿을곳이 없다

NEWS p/03

카라 日 인기 못말려!

ENTERTAINMENT p/16

손, 발 질환치료 왜 중요할까?

발가락질환 「무지외반증」 주의!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로 치료가능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만족도 높아

치료 전 / 치료 3개월 후

발가락 때문에 고민인 여성들이 많다. 특히나 맘에 드는 신발도 신을 수 없는 휘어진 발가락은 또다른 콤플렉스가 되고 있다. 신발도 문제지만 엄지발가락 뼈 있는 부분이 아픈 것은 더 문제다.

이처럼 무지외반증 치료를 미루다가 엄지발가락 부분에 뼈가 튀어나와 신발을 신어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병명은 무지외반증이라 부른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계속 아픈것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쑤실 때는 무척 아플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다가도, 추워지면 더욱 쑤시고 아프다. 오래 걸으면 발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욱신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무지외반증도 수술하면 툭 튀어나온 부분 및 쑤시고 아픈 통증도 치료 가능하다.

여성들에게 발병 빈도 높아

오랜기간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는 여성들의 체중이 엄지발가락에 집중되어 발가락에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무지외반증은 높은 빈도로 발병하고 있다.

무지외반증은 정상적인 발의 보행이 힘들면서 무릎과 허리에도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럼에도 발가락의 작은 부분이라 하여 질병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체념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치료 가능해

부산에서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엄지발가락은 인체에서 일종의 버팀목이자 지렛대라 할 수 있는데 이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은 물론이고,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지면서 자세도 비뚤어져 신체 여러부분에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엄지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동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걷기에 있어 조그만 변화나 무리가 있으면 우리의 발은 신체에 즉각적인 이상신호를 보내게 된다.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부르는 무지외반증 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미루다 고통만 키우는 대표적인 엄지발가락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미니금속나사를 이용한 무지외반증 치료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교정깔창을 사용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형된 정도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엔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을 시행한다. 부산 당감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원도 이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엄지발가락 하다부위인 제1중족골 부위 한 곳을 절골해 엄지발가락의 위치를 바로잡는다. 이 때 뼈를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미니금속나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수술 부위에 맞는 미니금속나사를 선택해 부착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수술을 시행한다. 미니금속나사의길이는 약 1.8cm 이내로 짧다.

이준호 원장은 "미니금속나사는 부작용이 적고, 제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수술 후 미니금속나사를 제거 할 필요가 없어서 2차수술이 굳이 필요없어 환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시술 시 주의할 점은 감혹 시술 후 부종이나 통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준호 원장은 돌출한 뼈를 제거하는 건막류 절골술, 중족골(발등뼈)의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 발가락뼈를 교정하는 시술, 늘어난 관절낭을 팽팽하게 만드는 관절낭성형술 등 네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재발율 걱정도 적다.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진다.

수술 후 회복되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다. 재활치료 및 회복이 빠르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부담도 덜었다.

이준호 원장은 "무지외반증이나 내활성 족지발톱은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몸이 스스로 자세를 변형시키면서 균형을 흐트려서 생기는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교정이나 수술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기보다는 진단과 치료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부했다.

부산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
문의 T.051)897-7582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 홈페이지(www.대한민국정형외과.kr)를 통해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증 이외에도 다양한 손과 발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노하우를 비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metro

한푼이 어디…보험도 온라인 대세

고객은 보험료 아끼고 회사는 비용 줄이고…한화생명 등 대형사 줄줄이 가세

직장인 이규진씨(35)는 최근 10년짜리 정기보험을 온라인전용 상품으로 가입했다. 빡빡한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다. 설계사가 파는 상품은 매월 1만9300원이지만 온라인전용 상품은 1만5000원이기 때문이다. 10년간 50만원 넘는 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보험 판매 채널이 변화하는 모양새다. 중소형사 위주의 온라인 보험시장에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온라인 보험시장은 점포 운영비, 설계사 수수료 등 각종 사업비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돼 왔다.

특히 대형 보험사들이 온라인 보험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온라인에 친숙한 20~30대의 젊은 고객층을 선점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향후 주요 고객층이 될 젊은 고객들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본격적인 채용시즌 '공채달력' 훑어져라 IMF 외환위기 시절에 버금가는 '취업빙하기' 도래가 예측된 가운데 29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2013 인크루트 하반기 채용설명회에 참가한 한 학생이 주요 기업들의 9월 채용 계획을 살피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연합뉴스

생보사 '빅3' 가운데 한화생명이 온라인 보험시장의 포문을 열었다. 한화생명은 최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해약 환급률이 높은 온라인 전용보험 5종을 내놨다.

한화생명 온라인 보험 브랜드는 '온슈어'다. 한화생명은 정기보험·연금보험·저축성보험·상해보험·어린이연금보험 등 5종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한화생명 온슈어 e정기보험은 설계사를 통한 가입보다 보험료가 15%가량 저렴하고, 온슈어 e연금보험은 1년 내 환급률을 90%가량으로 적집했다.

교보생명도 온라인보험 자회사인 'e교보 생(가칭)'을 10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상태다. 삼성생명 역시 10~11월께 사업부 형태로 온라인 보험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다.

대형 생보사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대형 생보사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로 기업 간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 관점에서 20~30대 알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판매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장 측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금 팔리는 온라인 전용상품은 비교적 설명이 쉬운 저축성 보험 위주라는 것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생명보험 상품은 통상 보장 기간이 긴 데다 일부 복합상품의 경우 특약이 30여 가에 달해 복잡하다"며 "보험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약, 재가입할 때 보험료 비교도 직접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35개大 재정지원 제한

성결대 등 수도권 5곳 포함··서남대 등 9곳은 국가장학금도 못 받아

전국 35개 사립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평가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순위 하위 15%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 중 부실 정도에 따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해왔다.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4년제 18개, 전문대 17개 등 35개가 선정됐다.

수도권에서는 성결대·성공회대·신경대(이상 4년제)·숭의여대·용지사무대(이상 전문대) 등 5개다.

지방대는 경주대·대구한의대·동양대·상지대(이상 4년제)·동강대·벽성대·부산예술대(이상 전문대) 등 총 30개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총 14개다. 학자금 70%만 대출 받을 수 있는 제한대출대학은 고구려대·대구미래대·영남외국어대 등 전문대 3개가 포함됐다.

학자금 30%만 대출받을 수 있는 최소대출대학은 경주대·서남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려대·한중대(이상 4년제)·광양보건대·대구공업대·벽성대·부산예술대·송호대(이상 전문대) 등 11개가 지정됐다.

경영부실대학은 1000억원대 교비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이홍하씨가 설립한 서남대·한려대·신경대·광양보건대를 포함한 11개교가 지정됐다. 경주대·송호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교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지원 대학 선택 시 학자금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대학인지 확인할 것을 대입 준비생과 학부모에게 당부했다.

/김유리기자 grace@metroseoul.co.kr

이석기 의원 따라가는 김재연 의원 종적을 감췄던 이석기 의원(통합진보당)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참석 후 기자들에 둘러싸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제기한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날조"를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이 진보적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이 의원 신체와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의원 뒤는 같은 당 김재연 의원. /연합뉴스

뉴스 & 뉴스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주치의 영장 청구

●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돈을 건넨 전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 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김종훈기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내달 2일 첫 회의

● 남북은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에 서명하고 다음달 2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공동위는 국장급 위원장 각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분기마다 1회씩 회의를 개최하기로 정했다.

공동위는 또 산하에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통행·통신·통관, 국제경쟁력 등 총 4개 분과위도 설치했다.

"100대 기업 임직원과 밥도 같이 먹지 마라"

국세청 고위직 청렴서약

각종 비리가 터지면서 국세청이 고위 공직자의 100대 기업 임직원 만남을 금지시켰다.

국세청은 29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다.

채택안에 따르면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0대 기업 및 지주회사 임직원과 식사나 골프 등의 접촉을 할 수 없다. 청탁을 들어주거나 금품을 받으면 고강도 징계가 내려진다.

아울러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를 추가한 '국세청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서'를 만들어 매년 초, 보직 변경 및 승진 시 새로 서명하도록 했다. 다만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수시로 점검할 고위공직자 감찰반도 설치할 예정이다.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감사관실이 모두 정밀 검증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국세청 외부 인사 비율을 과반으로 하고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정기·특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조사 진행 절차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전월세 대책 많이 놀라셨죠?" 민달팽이유니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29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이 청년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익살스러운 패러디물에 담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내부거래 줄었지만…

2009년 이후 처음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 평가 일러"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지정 기준 민간 대기업 집단 49곳의 내부거래를 집계한 결과 비중은 12.3%, 금액은 1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내부거래 금액은 2009년 첫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STX(27.49%), SK(22.51%), 현대차(21.33%), 포스코(20.59%), 웅진(18.76%)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집단은 한국투자금융(0.46%), 교보생명보험(1.09%), KT&G(1.47%), 대우건설(2.34%), 현대(2.48%) 등이었다.

금액순으로 보면 SK(35조2000억원), 현대차(35조원), 삼성(28조2000억원), 포스코(15조5000억원), LG(15조3000억원) 등이다. 이들 상위 5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액 합계는 129조2000억원으로 전체 49개 기업집단 내부거래액(185조3000억원)의 69.7%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진중공업으로 전년보다 10.09%포인트 증가했고, 웅진(4.92%포인트), 부영(4.57%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7조1000억원)의 내부거래액 감소분이 가장 컸고, KT(-1조원), STX(-0.8조원)가 뒤를 이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전체 내부거래비중은 감소했지만 아직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라고 설명했다.

/이국현기자 kmlee@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29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 직원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수산물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반대쪽 日 남서부 5개현 수산물서도 세슘 검출

日수산물 공포 커진다

원전 사고에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본 남서부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히메현·구마모토현·가고시마현 등 남서부 5개현에서 잡힌 수산물에서도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일본 에히메 10건, 구마모토·가고시마 각 2건, 나가사키·시마네 각 1건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

이 지역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남서쪽으로 1000여km 떨어진 지역이다. 해류가 일본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지역이라 방사능 오염에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다.

김 의원은 일본 남서부 지역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된 원인으로 양식어장의 사료를 꼽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인근 도쿄나 시즈오카 등지에서 잡힌 까나리 등 어류는 양식어장용 사료 원료로 쓰였고 이 사료가 일본 전역으로 유통되면서 방사능에 노출됐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더욱 투명하게 방사능 오염 정보를 한국에 제공해야 하고 식약처는 정확한 내용을 확보해 국민에 알려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슬기기자 press108@metroseoul.co.kr

경희사이버대 후기 입학식

경희사이버대학교가 3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캠퍼스에서 평화의 전당에서 2013학년도 후기 입학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희 아너코드 선언이 처음으로 진행되며 2부에서는 KBS 개그콘서트 서수민 PD가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자'를 주제로 입학 축하 강연을 한다.

경희사이버대는 또 31일까지 2학기 2차모집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문의 02)959-0000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미국 금융투자가 버핏 출생

1930년 8월 30일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인 워런 에드워드 버핏이 찰스 하워드 버핏과 레일라 부부의 세 자녀 중 둘째로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태어났다. 2008년 포브스 지 세계 1위의 재산으로 기록된 그는 이미 자신의 재산 85%를 자선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버핏은 부가 불의 상속에 함께 시도에 대해 "이는 200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자녀들로 2020년 올림픽 팀을 뽑는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피같은 혈액' 기막힌 관리

기자 수첩

황재용 <생활경제부 기자>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칭찬을 듣던 대한적십자사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단체 헌혈 현황'을 분석해 발표하자 적십자의 혈액 관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적십자는 법정감염병 발생 사실을 알고도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

적십자 혈액원은 2010년부터 2013년 7월 말까지 결핵·볼거리 등이 발생한 학교에서 총 20차례에 걸쳐 헌혈을 받았다. 감염병 환자의 채혈은 금지돼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5차례 헌혈이 진행됐다.

더욱이 적십자는 감염된 혈액을 출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가을 헌혈자 기록카드가 뒤바뀐지도 모르고 채혈 후 바뀐 혈액을 출고했고 관리 소홀로 인해 2009년부터 4년간 247억원에 달하는 9만1000ℓ의 혈액을 폐기한 적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적십자의 헌혈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다. 업무 관련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고 헌혈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자체가 부재하다.

이번 문제도 사전 조사 없이 단체 헌혈 시 의사 한 명의 판단에 모든 것을 의존했기 때문이다. 감염되거나 오염된 혈액이 유통되면 함께 유통된 혈액도 폐기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온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십자 스스로 불명예를 벗어버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차례상 차리는데 21만9000원

지난해와 비슷…단감 등 6개 품목 4% 오를듯

올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한 21만9380원으로 전망됐다.

메가마트는 20개 주요 제수용품 가격동향을 근거로 4인 기준 올 추석 표준 차례상 예상비용을 산정한 결과, 지난해 추석의 21만9500원과 비슷한 21만938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일류는 사과, 배의 경우 산지 작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단감, 수박 등 일부 제수용 과일이 폭염으로 인한 생육부진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올해 추석 주요 제수용 과일류는 6개 품목을 기준으로 지난해 6만7680원에서 4%가량 오른 7만2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사과 값은 지난해 추석에 비해 5~10% 하락한 1만3900원, 배(3개 기준)는 12% 하락한 1만3900원, 단감(3개 기준)은 13% 오른 8800원, 대추(150g 기준)는 13% 하락한 3900원에 각각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의 경우 주요 제수용 생선의 어획량 감소로 가격상승이 예상되지만 비축 재고물량 증가로 지난해 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기(긴가이석대, 1마리), 참조기(3마리) 등 5개 품목을 기준으로 지난해의 8만7200원보다 2.3% 하락한 8만5200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의 경우 폭염, 가뭄 등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수용 채소의 산지별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량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대파(1단), 무(1개), 시금치(1단) 등 6개 품목을 기준으로 지난해 2만5620원과 비슷한 2만548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부산 온종합병원(병원장 정근)은 부산진경찰서(서장 이노구)와 지난 27일 위촉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민주시민의식 함양 '맞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과 지난 28일 시선관위 대회의실 4층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확산을 통한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부산시선관위·교육청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백준
서울광고영업	02)721-9851~3
부산광고영업	051)519-2100
독자센터	02)721-9881

200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6

'뉴턴 4대손 사과, 붉게 익었네' 동아대는 뉴턴 4대손 사과나무의 사과가 식수 이래 처음으로 붉게 익었다고 29일 밝혔다. 대학 승학캠퍼스 본관 앞 운동장 입구에 있는 이 사과나무는 뉴턴(1642~1727)이 영국 자신의 집 뜰에 있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과나무의 4대 손이다.

/동아대 제공

호텔·음식점 70% 싸게 이용하세요

내달부터 '부산그랜드세일'

부산의 최대 쇼핑·관광 축제인 '2013 부산그랜드세일'이 내달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 부산 주요 관광시에서 진행된다.

부산시는 부산그랜드세일 기간 동안 국내·외 관광객들은 해운대, 남포동·광안리, 서면 등 주요 관광지 호텔·면세점·음식점 등에서 최고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산·울산·경남 방문의 해'를 맞아 부산그랜드세일 규모를 대폭 늘려 지난해 2400여 업체에 비해 올해는 3800여개 업체가 참여해 54% 증가했다.

참여 업소는 쇼핑·숙박·식음료, 공연, 크루즈, 카지노, 관광사업체 등으로 업소별로 5~70% 할인하며 특히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도 세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제시장, 부전인삼시장, 부평깡통시장, 골드테마거리 등 4개 재래시장에서 1900여 개의 점포가 참여한다. 재래시장이 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부전인삼시장은 인삼제품을 현금으로 살 때 5~20% 할인해 준다.

특히 해운대 건오·코오롱씨클라우드호텔은 70% 할인율을 적용, 부산국제영화제 기간(10.4~10.12)을 제외하고 평일(일~금요일) 객실을 12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할인쿠폰은 29일부터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www.bto.or.kr)에서도 프린트해 사용할 수 있다.

/뉴시스

메트로신문 부산판 발행 10주년 축하 메시지

초심 잃지않은 메트로… 출근길 '베프'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유익한 신문… 아낌없는 신뢰"

메트로 부산판 발행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0년은 국내 매체환경이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은 시기였습니다. 무수한 매체가 탄생하고 사라져가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메트로는 완벽하게 독자를 위한 독자의 신문 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았기에 많은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메트로는 철저하게 글로벌 스탠다드의 준칙에 따르면서 우리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데도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독자들은 아침 출근길에 가장 유익하고 때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신문으로 메트로를 손꼽고 있습니다.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정직하게 보도함으로써 가치판단을 독자의 몫으로 돌리는 메트로에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무료신문 으로 당당히 자리잡아온 메트로가 부산판 발행 10주년을 계기로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더 크게 기여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발행 1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모든 메트로 부산 가족과 독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알찬 소식 가득… 쑥쑥 커가길"

부산시민들에게 친근한 신문으로 자리매김한 메트로신문 부산판 발행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다양하고 알찬 소식으로 독자들의 시랑을 넓히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문은 다양한 위상 모습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공간으로써 여러 시각과 의견을 분석 판단할 수 있어 삶의 교과서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출근길 시민들이나 이웃들에게 편리하고 소중한 소식지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해 온 메트로신문에 큰 찬사를 보냅니다.

한편으로 지역경제 현안과 발전방안 제시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보도를 기대합니다. 신공항 조기건설, 도심철도시설이전 등 부산 현안과 강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제언도 더욱 많이 담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메트로신문이 더욱 참신하고 알찬 소식으로 시민들로부터 호평받는 신문으로 나날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야구 명예의 전당' 생긴다

시, KBO 등과 양해각서 체결… 기장군 건립사업 본격화

'한국야구 박물관 명예의 전당'을 부산 기장군에 건립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기장군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한국 야구 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29일 부산시청 의전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 정수현 기장군 부군수, 양해영 KB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시는 야구도시에 걸맞은 한국야구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야구 박물관 명예의 전당' 유치활동을 벌여 왔다. 이로써 지난 4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명예의 전당 건립이 한 걸음 더 진전됐다.

한편 야구박물관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인근 자연녹지 등 6515㎡에 토지보상 18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총 338억원을 들여 건립될 예정이다. 시가 사업비 115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총 면적 3374㎡ 규모로 명예의 전당을 짓고 기장군은 현대자동차(주)와 함께 사업비 223억원을 들여 정규 야구장 4면, 소프트볼 1면, 실내연습장 체험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현우기자 cyc @metroseoul.co.kr

야구선수 손은 어떨까 29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에비뉴엘 M1층에 롯데 자이언츠 김민호, 손아섭, 황재균 선수의 손모양과 사인이 담긴 핸드프린팅을 전시해 고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동의과학대 취업률 지역 1위

동의과학대학교는 지난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전국 대학 취업률발표에서 69.2%로 부산지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률은 지난해 8월 및 올해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김영도 총장은 "우리 대학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라이프가이드(life Guide)를 운영해 입학과 동시에 지도교수가 정해지면 대학생활은 물론 졸업 후 사회진출까지 지도하는 '평생지도교수제' 개념으로, 평소 1대1 상담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 학생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metro USA

metro Chile

국경일 연날리기 사고 예방 캠페인

칠레 독립기념일(9월 18일)을 앞두고 최근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연날리기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대 국경일인 이날 칠레 전역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연날리기 행사가 진행되는데 종종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끌어당길 때 순간적으로 팽팽해진 실이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 어린이들의 살이 찢어지거나 손가락이 절단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 산티아고시 관계자는 "즐거운 축제날 끔찍한 사고가 생겨서는 안된다"며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metro Mexico

Tormenta *Fernand* saca a cocodrilos a calles tampiqueñas

허리케인 휩쓴 주택가 악어떼 공포

멕시코 동부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이 악어떼를 불러와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초강력 허리케인 '페르난드'가 캐리비해 연안 지역인 탐피코를 휩쓸고 지나갔다. 주 정부는 이로 인한 홍수와 폭우로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허리케인은 소멸 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강가에 살던 악어들이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떠밀려 주택가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탐피코 지역에 서식하는 모렐레티 악어가 강가 주변에서 여러 출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웃통 벗는데 웬 남녀차별

여성평등의 날 맞아 미국 35개 도시서 '고 토플리스 데이' · 여성 수천명 가슴 노출 활보

25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고 토플리스 데이'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노출은 성적이지 않다'는 문구가 쓰여진 포스터를 들고 있다.

"남성은 거리에서 웃통을 벗어도 되는 데 여성은 왜 안되는 겁니까?"

25일(현지시간) 상반신을 드러내자(Go Topless)는 타이틀을 내걸고 거리 시위를 벌이는 '고 토플리스 데이'(Go Topless Day)를 맞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시민들이 '남녀 평등 달의 날'을 외쳤다.

고 토플리스 데이는 여성도 남성처럼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가슴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리자는 취지로 매년 '여성평등의 날'(8월 26일)과 가까운 일요일에 세계 곳곳에서 열린다. 시위대는 가슴을 완전히 노출하거나 가짜 젖꼭지 혹은 테이프로 가린 채 행진한다. 이를 지지하는 남성들 역시 브래지어를 착용하거나 젖꼭지를 가리린 참여할 수 있다.

이날 뉴욕과 워싱턴 DC,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캐나다 35개 주요 도시에서도 수천명의 여성 시위자들이 상반신을 드러낸 채 거리를 활보했다.

보스턴 거리 행진에 참가한 스테이시 슈네(28)는 여성의 상반신 노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기위해 이번 시위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슈네는 "남성들은 윗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다니는데 왜 여성만 허용되지 않느냐"며 "이는 엄연한 남녀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원한 바람을 가슴으로 느끼는 기분은 정말 환상적이다. 윗옷을 입었을 때보다 온도가 3~4도는 시원한 것 같다"며 "여성들이 이런 기분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참가자인 켈리(22)는 "가슴을 드러낸 채 거리를 지나다 몇몇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면서 "똑같은 몸인데 남성과 달리 여성의 상반신 누드만 이상하게 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미국에서 여성의 가슴 노출 문제는 찬반 여론이 엇갈린다. 일부 여성들은 "여성도 상반신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며 '당당한 노출'을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남성들에게 성적인 자극만 준다"며 '상반신 노출 평등권'을 거부한다.

한편 고 토플리스 데이는 '라엘리안 무브먼트'라는 종교 단체가 주관한다. 이 단체는 외계인과 만났다고 주장하는 전직 스포츠 담당 기자 클로드 보리롱 라엘이 1975년 스위스에서 창설했다.

/로린 투소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metro Russia

노래 가르치는 식빵 할아버지 제자는 비둘기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공원에 '비둘기 음악선생님'으로 불리는 노인이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몇 해 전 정년 퇴직한 음악교사 아르투르 아브라만(77). 그는 "요즘 비둘기 제자들 가르치는 맛에 푹 빠졌다"며 활짝 웃었다.

아브라만이 공원에 들어서자 수십 마리의 비둘기가 어찌 알았는지 그의 주변으로 동시에 몰려든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해 온 모이를 나눠주며 비둘기들에게 노래를 불러준다.

아브라만은 "수년 전부터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비둘기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올 정도로 친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남들에게 '착한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비둘기들 역시 제각기 성격이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 새들과 소통하는 일이 즐겁다"고 덧붙였다.

아브라만은 공원 곳곳에 흩어져있는 비둘기들을 위해 여러 차례 자리를 옮겨 모이를 나눠준다. 그는 "가끔 비둘기들에게 식빵 부스러기를 줄 때가 있는데 웬일인지 흰 빵은 잘 먹지 않는다"며 "그래서 항상 곡물이나 호밀로 만든 흑빵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공원을 찾는 일부 사람들은 "수십 마리의 비둘기들이 공원 내 벤치를 배설물로 더럽히고 있다"며 "모이를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한다. 이에 아브라만은 자식 같은 비둘기들이 욕을 먹지 않도록 벤치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다.

/드미트리 부이노프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김치롤' 파워 보여줄 것"

LoL 세계대회 '롤드컵' 국가대표 나진 소드 "팀플 중요… 똘똘 뭉쳐 우승견인"

국내 최초 롤드컵 우승을 향한 도전이 시작됐다.

역할 수행 게임(RPG) 리그오브레전드(LoL)의 세계 대회인 '롤드컵' 국내 대표로 나진 소드(사진)가 최근 선발됐다. 롤드컵은 게임 약자 '롤(LoL)'에 축구 대회 '월드컵'을 합친 말이다.

올해 2회째인 롤드컵은 다음달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미국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3팀이 나가며 나진 소드 외 나머지 두팀은 다음달 7일 최종 결정된다.

나진 소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롤드컵 결선에 진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나진 소드는 지난해 8강전에서 대만 대표팀 TPA에 져 아쉽게도 탈락했다. 당시 TPA는 롤드컵 초대 우승까지 차지했으나 올해는 대만 선발전에서 탈락하는 이변을 낳았다.

이번 결선에는 북미와 유럽, 우리나라에서 각 3개팀, 중국 2팀, 대만 및 동남아시아 2팀, 그리고 남미와 러시아 등 총 14개팀이 참여한다.

아직 전세계 롤드컵 진출 팀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나진 소드와 강력한 적수는 북미 유럽팀으로 알려졌다.

나진 소드 선수들은 "지난해 아쉽게 탈락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면서 "그 결실을 맺을 때가 왔으니 이번 롤드컵 우승컵은 한국팀 최초로 나진 소드가 들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나라 게이머들의 리그오브레전드 실력은 해외에서 김치롤이라 불릴 정도로 정평이 났다. 이 게임의 우리나라 PC방 점유율은 40%를 넘는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만팀에 이어 올해에도 동아시아에서 롤드컵을 가져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태다.

나진소드를 이끄는 박정석(31) 감독은 "뚜렷한 목표 의식과 단단한 팀워크로 롤드컵을 들어올리겠다"면서 "팀플레이가 중요한 게임인만큼 단단한 신뢰와 시너지 효과로 우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훈기자 unique@metroseoul.co.kr

웅장한 무협게임의 진수

'용쟁호투' 온라인 서비스

무협게임 '용쟁호투'가 정식 출시됐다.

서비스 제공사 (주)네티모는 역할 수행 게임(RPG) '용쟁호투 온라인'을 29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게임트리스는 이 게임을 이번달 마지막 주 '주목할만한 신규 게임'에 선정하기도 했다.

용쟁호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한 무협 게임으로 각 레벨에 맞는 사용자들끼리 연합해 전쟁을 치르는 줄거리로 구성됐다.

특히 이 게임은 오행(五行) 요소를 가미해 무료 운세 풀이, 이용자 사주에 맞는 캐릭터 추천 서비스 등으로 독특한 재미도 선사한다.

네티모는 용쟁호투 출시를 기념하는 '용호상박' '와신상담' 이벤트를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dragon.ipopcor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티모 관계자는 "이소룡의 대표작 '정무문'이 국내 재개봉되는 날인 29일에 맞춰 용쟁호투를 출시하게 됐다"면서 "무협게임의 웅장함과 철학을 만끽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정용훈기자 unique@

market index <8월 29일>

코스피 1907.54 (+23.02)
코스닥 520.97 (+2.93)
금리 2.91 (-0.02)
환율 1111.50 (-4.50)

뉴스 & 뉴스

우리카드 사장에 강원 선임

● 우리카드 사장에 강원(사진) 전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에 김병효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자산운용 사장에는 박종규 전 유리자산운용 사장이 최종 후보로 선임됐다.

우리금융은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해 이사회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애초 대주주가 정부에 인사검증을 의뢰할 때 2순위로 올랐던 인물이다.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 인사에서 1순위로 올랐던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고 2순위 후보들이 선임되는 '뒤집기'가 벌어졌다. /김현정기자

펀드수 세계2위…자산 1%

● 한국의 펀드 수 비중이 전 세계의 12.4%로 세계 2위이지만 순자산 규모로는 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말 기준으로 한국의 펀드 수는 9193개로 전 세계 주요국 펀드 수의 12.4%를 차지했다.

1위는 룩셈부르크(12.8%)다. 반면 한국의 펀드 순자산은 1분기 현재 전 세계의 약 1.0%에 불과했다. 소규모 유령성 펀드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현정기자

매매가 8주째 하락…전셋값 53주째 상승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6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떨어졌다. 8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전셋값은 0.15% 상승해 53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매매가격의 경우 서울 수도권(-0.03%)은 지난 주보다 내림 폭이 둔화됐으나 1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0.00%)은 보합세로 전환됐다. 이에 반해 전셋값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물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 수도권(0.30%)은 53주, 지방(0.08%)은 54주 연속 오름세를 탔다. 서울(0.30%)은 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강북(0.21%)은 전주 보다 오름 폭이 둔화됐다. 강남권(0.38%)은 여전히 상승세가 뚜렷했다. /이은아기자 eun@metroseoul.co.kr

건설주 '활짝'…증권가 "일단 합격점"

8·28 전월세 대책 영향은

"부동산 시장 단기간 회복 어렵다" 한목소리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주식거래 활성화와 건설사 미분양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엇비슷한 합격점을 줬다. 정책발 훈풍에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국내 건설주들의 주가가 들썩였다.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주 상당수가 강세를 보였다. GS건설(1.32%), 일성건설(2.67%), 동양건설(0.47%) 등이 일제히 올랐다.

증시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세입자 지원 늘리기 등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건설주의 주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상으로 크게 저평가된 상태이므로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는 이번 대책이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정책이었다"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미분양 해소에 따른 현금흐름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간에 국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일단 정부의 부동산정책 완화 의지에도 불구, 앞서 나온 4·1 대책의 실행방안 대부분도 국회에서 여전히 보류 중이기 때문이다.

서보익 연구원은 "아직 여야 간의 견해차가 크고 정책 효과가 발휘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형 호재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에서 신규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모기지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은 (결국) 집주인의 손실비용을 정부와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될지 100%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건설사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려면 해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업체들의 성장 동력은 주택 시장보다는 외국에서 수주하는 공사의 이윤이 될 것"이라며 "2분기를 바닥으로 외국 시장에서의 실적이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중선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각 가계의 주택 구매여력을 높이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늘린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 난제인 가계부채를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현정기자 hjk1@

내 얼굴보다 훨씬 큰 무등산 수박 보세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지원들과 한 어린이 모델이 전라도 광주 지역 특산품 '무등산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일반 수박의 2~3배 크기에 무게가 20Kg이 넘는 대형 수박으로 강물에 줄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수박은 매년 소량만 출하되며 가격은 한 통(22kg)에 35만원이다. /연합뉴스

채용 양극화 심해진다

신입사원 구인 규모 지난해보다 대기업 4.8%P↑ 중소기업 2.1%P↓

2009년 금융위기(IMF)에 버금가는 채용절벽기가 도래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기침체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중견·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1700여개 상장사 가운데 777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34.6%만이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채용시장이 위축된 2009년 하반기(35.4%)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다는 대답은 대기업(50%), 중견기업(37.8%), 중소기업(32.5%)으로 나타났다.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대기업(18.9%), 중견기업(38.9%), 중소기업(52.8%) 등의 순이다.

채용규모에서는 대기업의 감소율이 10%로 나타났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감소율이 각각 30.9%, 23% 등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따라 전체 신입사원 채용 규모에서 대기업이 지난해보다 4.8% 포인트 증가한 60.8%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지난해보다 각각 2.7%, 2.1% 포인트 감소한 13.1%, 26.1%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심화될 것이란 이야기다.

12개 업종 가운데 석유화학만 지난해 하반기보다 채용을 소폭(1.5%) 늘리고, 나머지 11개 업종은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전자(2.3%↓), 정보통신(2.4%↓), 자동차(4.8%↓), 금융(9.4%↓)은 일자리 수 감소폭을 보였다. 유통물류(14.9%↓)-제약(17.1%↓)-식음료(23.4%↓)-기계철강조선중공업(23.8%↓)-제조(31.9%↓) 순으로 감소폭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의 경우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80.7%나 감소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최근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고졸채용, 시간제일자리, 정규직 전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전반적인 대기업의 채용규모는 감소될 전망"이라며 "기업 위기 이슈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기업 내부에서도 채용 계획 수립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offee@metroseoul.co.kr

프리미엄 해치백 탑재 '시트로엥 DS3 카브리오' 한불모터스가 29일 서울 송파동 시트로엥 강남전시장에서 새로 출시한 '시트로엥 DS3 카브리오'를 선보이고 있다. 이 차는 프렌치 프리미엄 해치백 DS3에 전동식 캔버스탑을 적용한 오픈형 모델로 가격은 3000만원대다. /연합뉴스

삼성 입사시험 문제집만 63종

판매가도 가장 비싸

삼성그룹 입사시험 문제집이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국내 자산총액 10대 그룹의 인적성 검사 대비 문제집(2013년도 출간)을 비교한 결과, 삼성의 입사시험 문제집 종류가 63종으로 가장 많고 판매 가격도 평균 2만124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경우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학점 3.0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추면 직무적성검사(SSAT)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류전형의 장벽이 낮은 덕분으로 풀이된다.

LG그룹이 22종 입사시험 문제집 평균 1만7950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는 22종(1만7660원), SK 17종(1만7110원), 두산 16종(1만5800원), 롯데 10종(1만5600원), GS 6종(1만8330원), 한화 6종(1만5820원), 현대중공업 5종(1만638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출판업계 관계자는 "각 그룹이 실시하는 인적성 검사를 실제로 풀어보면 비슷한 유형이 많아 보편되지만 개별 기업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른 만큼 그룹 맞춤형 문제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m@

건설업체 수 6년만에 줄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 탓

4대강 사업 종료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로 건설업체 수가 6년 만에 감소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2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공사실적이 있는 기업체 수는 6만5251개로 2011년보다 218개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감소는 통계상 2006년(-11.7%) 이후 6년 만이다. 2006년을 제외하면 통계상 건설업 감소는 1987년(-0.1%) 이래 25년만이다.

발주자별로는 국내 부문이 18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90억원(0.4%) 감소했다. 민간부문에서 3조840억원 증가했지만 공공부문에서 3조6490억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4대강 사업 예산이 2011년까지 매년 3조원 가량 투입되다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와 함께 종료돼 이같은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지난달 설립 법인수 최대

지난달 설립된 법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청은 7월 신설법인 수가 714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27개보다 0.2%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신설법인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년 동월보다 각각 5.1%, 4.5% 증가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2.0% 감소했다.

“한국영화 게 섰거라” 외화 대반격

‘엘리시움’ 예매율 1위 질주 등 줄줄이 상위권
다음주까지 강세 이어질듯 … ‘숨바꼭질’ 톱3

한국영화의 월 관객 2000만명 시대를 처음 열린 8월의 마지막 주, 외화 삼총사의 대반격이 예고되고 있다.

29일 오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예매율 집계에 따르면 이날 개봉된 SF 액션물 ‘엘리시움’이 27.2%로 1위를 달렸고, 상영 2주째로 접어든 ‘나우 유 씨 미: 마술사기단’이 21.0%로 뒤를 이었다.

또 ‘엘리시움’과 같은 날 공개된 예시던 커저 주연의 ‘잡스’는 10.4%로 4위를 차지해 3위(13.8%) ‘숨바꼭질’을 세 편의 외화가 둘러싼 상황이 됐다.

예매 실적대로라면 ‘엘리시움’이 이번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들어 외화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다음 주말까지 외화들의 반짝 경기 회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시즌을 겨냥한 흥행작들 가운데 가장 빨리 출발하는 설경구·문소리 주연의 코믹 액션물 ‘스파이’와 제한상영가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다음달 5일 개봉되지만, ‘설국열차’ ‘더 테러 라이브’ ‘숨바꼭질’ ‘감기’가 한창던 8월의 한국영화 흥행 돌풍을 이어받기는 다소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극장 관계자는 “송강호·이정재 주연의 ‘관상’이 다음달 12일 개봉되기 전까지 잠깐이나마 외화들의 강세가 점쳐진다”고 분석했다.

▶ 숨바꼭질 이번주 500만 돌파 전망 … 설국열차 900만

28일까지 전국에서 444만2160명을 동원한 ‘숨바꼭질’은 이번 주말 500만 고지에 안착할 전망이다. 872만9913명을 불러모은 ‘설국열차’도 흥행 속도가 아주 느려지긴 했지만 900만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칸 진출작 ‘쇼를 사랑한 남자’ 개봉

올해 칸 국제영화제 장편 경쟁 부문 진출작 ‘쇼를 사랑한 남자(원제 비하인드 더 캔덜라브라)’가 10월 9일 국내 관객들과 만난다.

명장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1960~70년대 라스베이거스를 주름잡았던 피아노 연주자 리버라치와 동성 연인 스콧의 사랑과 전쟁을 실화로 그렸다. 리버라치는 화려한 무대와 천란한 쇼맨십을 앞세워 당대 최고의 엔터테이너로 불렸던 인물이다.

인후암 투병으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마이클 더글러스가 리버라치로 변신해 놀라운 연기를 선보인다. 마초적 이미지가 강했던 이전과 달리, 성형수술을 너무 자주 받아 눈뜬 채 자는 모습부터 교태스러운 발성까지 여성스러운 게이 캐릭터로 건재를 과시한다.

단정하고 우직한 남자 전문인 맷 데이먼의 호연도 더글러스 못지 않다. 극중 리버라치의 연인이자 양아들이며 친구로 사랑과 우정의 오묘한 경계를 이어 가다.

스콧이 에이즈로 죽은 리버라치가 마지막 무대에서 하늘을 날아 퇴장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마지막 장면은 가슴 찡한 여운마저 선사한다.

/조성준기자

롯데시네마 배급사에 수익 55% 지급

롯데시네마가 한국영화에 유리한 쪽으로 다음달부터 부율을 조정한다.

롯데시네마는 29일 “9월 1일부터 서울 지역 자사 직영 상영관의 한국영화 부율(배급사와 극장의 수익 배분 비율)을 기존의 50 대 50에서 55 대 45로 바꾼다”며 “한국영화의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한국영화 부율은 배급사 50 대 극장 50으로, 앞서 6월 CGV가 55 대 45로 부율을 변경했다.

식중독 예방의 3대 요령은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입니다. 노인이나 면역력이 약해진 경우 식중독에 노출되어 설사를 하는 경우 충분한 수분공급이 중요합니다.

찬식 체질량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www.kma.go.kr)

'멸종 위기'에 처한 서점들

권기봉의 도시산책 <47>

서울대학교와 고시촌이 자리한 서울 신림동에는 유독 서점이 많았다. 그 중 몇몇 서점들은 책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친구들끼리 약속을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었기에 친구들끼리 만날 일이 있으면 서점 게시판에 며칠 몇시 어디에서 보자는 식으로 쪽지를 남겼던 것이다. 오래된 사회과학서점인 '그날이 오면'이나 '광장서적'이 바로 그런 곳들이었다.

그런데 요즘 그곳 분위기가 엄어슬하다. 지난 1월 1억60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한 광장서적이 결국 부도처리됐기 때문이다. 지난 1978년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쓴 책을 팔면서 생활고도 해결하자는 취지로 문을 연 광장서적이기에 씁쓸함이 더하다.

이제 신림동에 남은 사회과학서점은 '그날이 오면'뿐이다. 대학생들이 당장의 취업 공부에만 매달린 나머지 책읽기를 멀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2012년 말 현재 대학생들의 월 평균 독서량은 2.2권에 불과하고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대학생도 18.4%나 된다.

그나마 책을 읽는다 해도 할인 공세를 펴는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탓에 오프라인 서점은 더 이상 발 붙일 곳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1997년 전국 5407개에 달했던 서점이 14년 만인 2011년 현재 1752개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니 말이다.

더욱이 강원도 고성을 비롯한 전국 30개 지역은 서점이 단 1개뿐인 '서점 멸종 위기지역'이 된 지 오래다. 경북 영양과 인천 옹진 등 전국 4개 군에는 아예 서점이란 게 없다. 영혼과 지혜의 허기를 달래주는 책을 멀리 하고 그 토대가 되는 서점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창조를 화두로 삼는 오늘날의 한국.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결혼하고 싶은데 애인도 없어 남자운 '다자무자' 각별히 주의

달용 여자 81년 3월 28일 오전 11시

Q 미술 강사입니다. 언제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나이도 찼고 많은 결혼하고 싶은데 아직 남자친구도 없고 연애를 해도 오래가질 못하네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직장에서 남자를 만나기도 힘들고요.

A 세상만사는 다 연결되어 있는 법입니다. 음양오행이란 그 변화하는 모습을 고유의 일정한 틀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음양오행은 큰 의 다의 흐름에서 변전이 시작되는 때를 3이라는 숫자로 설명합니다. 3년의 흐름을 말하는 것도 36개월입니다. 36이 지난 시점부터는 반대 흐름이 두렷해집니다. 지금 33세이니 3년 후면 36세가 되겠네요. 색일지에 부부 궁이 고란과 숙살(孤鸞殺)살 줄이에 과부되는 흉한 오행을 나타냄으로 남편과 독수공방을 겪으며 남편에 작취하는 일로 권력 소유하는 것으로 다음대니 남자운에 대해 다자무자(多者無者) 지나치게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은 귀히를 두고 하는 것이다 노력하십시오.

복학해야 하는데 학비가 부족 힘들어도 공부 끝까지 마쳐야

나그네66 남자 89년 7월 13일 제오

Q 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군에 입대해 전역한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학원 강사도 해보고 지난해 계약직으로 취업해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복학하는 데 필요한 학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A 실력이 출중해야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기본적으로 학업이 뒷받침돼야 하겠지요. 사주에서 인수(印綬: 나를 생해주는 오행)가 부족한 골곡이 있으나 학업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식관 겁재(劫財) 관을 해하고 재물을 탈취 당해하니 직업이 변동이 많고 재물이 부족해 갈망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쓸쓸한 답변에 될지 모르겠으니 존재감을 잃지 말고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힘이지만 양인(羊刃)하여 불굴의 의지를 갖고 난관을 개척하니 머리가 좋은데 잘 정도로 됐습니다. 2016년 해를 당하는 암시가 있으므로 항상 음주나 관재구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묻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8		9	
			2					7
	9						8	
		7		3			6	
		5	1	2	6	3		
	2			5		8		
	3						2	
1					5			
	8		9	6				

	9	2						
3			2				7	6
		8		6		1		
		7						9
			8	4	3			
1						8		
		4		8		9		
9	5				6			7
						4	1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뉴스
한사 스도쿠 플래티넘 (아이틀리오스 자료)

신점[神占] 운세 8월 30일(음 7월 24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가족 화목에 힘써라. 60년생 후원해줄 귀인이 나타난다. 72년생 돈을 만지는 사람은 관계수 조심할 것. 84년생 맘 졸인 만큼 수입이 늘어나다 좋겠다.

소: 49년생 갖고 싶었던 물건 얻는다. 61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절제하여 본전. 73년생 작은 목표 이뤄 업무에 탄력 받는다. 85년생 돈으로 인한 갈등 조심.

호랑이: 50년생 구설수 있으니 언행 조심. 62년생 일 걷고 나서야 할 일 생긴다. 74년생 업무보고는 상사의 기분 파악한 후에 할 것. 86년생 인연의 레이에 눈이 솟는다.

토끼: 51년생 속마음 드러내면 당한다. 63년생 부진했던 일 살속세 탄다. 75년생 꽉 찬 상사 때문에 퇴근하기 싫다. 87년생 후회하는 선후회 많이 일어나 일하지 말라.

용: 52년생 절대 포기하지 마라. 64년생 자신했던 일이 어긋난다. 76년생 수입이 늘어나지만 지출도 예산 초과한다. 88년생 갈 길이 머니 준비에 최선 다하라.

뱀: 53년생 먼저 양보하면 얻는 게 많다. 65년생 술자리에서 어린 사람과 시비 조심. 77년생 월경이나 와를은 행운이 따른다. 89년생 부담한 여러 당장 물러줘라.

말: 42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 자제하라. 54년생 문서 외 운 계속된다. 66년생 이웃사람과 호흡 잘 맞아 능률 오른다. 78년생 움직이면 뜻밖의 선물 기다린다.

양: 43년생 미래 관련 좋은 따른다. 55년생 아랫사람과 소통에 신경 써라. 6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 거둔다. 79년생 화를 이하는 상사를 이해하라.

원숭이: 44년생 뒤충할 뿐 문단속 신경 써라. 56년생 돈줄이 풀려 수입이 늘어난다. 68년생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콧노래가 절로~ 80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닭: 45년생 안했던 사람이 기대에 부응. 57년생 인기는 많으나 실속은 없는 날. 69년생 순진한 사람 이용하려다가 당한다. 81년생 오늘보니 내일을 보고 선택하라.

개: 46년생 근심이 사라져 기쁜 하루. 58년생 가족의 도움으로 뜻 이룬다. 70년생 이웃사람과 갈등 생기지 않도록 조심. 82년생 부모의 지원에 성공의 날개 단다.

돼지: 47년생 헛된 욕심 때문에 계획만 구긴다. 59년생 생각지도 못한 돈 들어온다. 71년생 불안한 상황이 안정되어 간다. 83년생 상사의 꾸중은 기꺼이 받아들여라.

metro entertainment E

한재원 자스 배영준 김상훈

<새 여성보컬>

“자스 노래 듣고 단박에 반했어요”

또다른 음악여정 나선 밴드
더블유 앤 자스

일렉트로닉 감 밴드 '더블유 앤 웨일'(배영준·한재원·김상훈)이 '더블유 앤 자스'로 팀 이름을 바꾸고 팬들에게 새음악을 선사하기로 했다. 이 팀은 MBC드라마 '케세라세라'의 주제가 '월광'과 광고 삽입곡 'R.P.G 샤인'등을 히트시켰던 밴드다. 여성 보컬 웨일이 나간 자리에는 새 멤버 자스(본명 장은아)가 들어왔다. 팀 결성 15년째를 맞는 더블유는 자스와 함께 미니앨범 '뉴 키드 언 타운'을 발표하고 새로운 음악 여정을 시작했다.

#3단 고음에 빼어난 표현력 감동

웨일이 솔로 가수로 독립한 이후 더블유는 변화를 위해 남성 보컬 영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100차례가 넘는 오디션을 봤지만 적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보컬은 많았지만 개성 있게 감성을 전달하는 인물은 없었다.

그 무렵 한재원과 김상훈의 추천으로 오디션을 본 자스는 리더 배영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남자 보컬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별 기대 없이 만났는데 노래를 듣고 홀딱 반했어요. 오디션 곡으로 '만화가의 시려 갔은 고양이'를 제시했는데 부드럽게 얘기하듯 부르는 모습이 좋았어요."(배영준)

세 남성 멤버는 "3단 고음의 폭발적인 가창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도 훌륭하지만 빼어난 표현력에 감동받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자스는 2006년 드라마 '서울 1945' OST로 데뷔해 러브홀릭스 객원 보컬로 활동하며 영화 '국가대표' OST에도 참여했다. 대학에서 판화를 전공한 그는 홍익대 미술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미술과 음악 활동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엠넷 '보이스 코리아 시즌1' 출연 이후 진로를 굳혔다.

"목소리로만 심사를 한다는 형식이 끌렸어요. 당시 저의 멘토가 애매했거든요. 앞으로 노래를 계속할 지 말 지를 결정하겠다는 심정으로 '보이스 코리아'에 출연했죠. 결과적으로는 방송 출연이 인연이 돼 더블유 오빠들을 만나게 됐고, 힘든 상황에서 노래하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도전 의지를 다지게 됐어요."(자스)

#팀 음악색깔 변화

"웨일이 왈가닥 잘 여동생 같았다면 자스는 친구같고 어딜 땐 우리가 의지하게 돼요. 유쾌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늘 에너지가 넘쳐서 저희들의 성향까지 바꿔놓고 있어요.

이번 미니앨범은 차분+강렬
사랑·삶 담담하게 그렸죠

할 일 없이 작업실에만 박혀 지냈었는데, 자스의 권유로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놀이동산도 다녀왔어요."(한재원)

바뀐 팀 분위기는 음악 색깔의 변화로 이어졌다. 웨일과 작업했던 음악들이 발랄하고 아기자기한 모험과 같았다면, 자스와 함께 발표한 이번 앨범은 보다 깊은 세계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강렬하면서도 차분하게 정리된 비트와 더욱 풍부하고 성숙해진 보컬이 앨범 전반에 두드러진다.

타이틀곡 '그린'은 사랑에 대한 망설임과 삶의 희망을 담담한 어투로 그린 노래다. 그동안 영화·문학작품·애니메이션의 이미지를 노래에 인용하는 시도를 자주 해왔던 이들은 이 곡에서 루시드 폴의 '고등어' 가사와 김중혁 작가의 소설 '악기들의 도서관'을 인용해 눈길을 끈다.

"화려한 색채를 넣지 않으면서도 자스의 목소리를 최대한 아름답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순수하게 보컬리스트의 힘으로 곡을 밀고 나가면서 편안하고 화사한 느낌을 전달하려고 했죠."(김상훈)

#173cm 그녀 만능엔터테이너

173cm의 키와 서구적 외모를 지닌 자스는 미술과 음악뿐 아니라 뮤지컬에도 진출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초 뮤지컬 '광화문연가'에 리사와 함께 여주인공으로 더블 캐스팅됐고 앨범 두어 공연도 다녀왔다. 이어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에는 마리아 역으로 출연했다.

"자스가 출연하는 뮤지컬을 보러 갔었는데 우리 옆에 있던 동생이 아닌 다른 연예인이 무대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숨은 재능에 놀랐고, 우리가 이런 대단한 친구와 함께 활동한다는 데 뿌듯했죠. 저희가 프로듀서로 여러 음악 활동을 하듯이 자스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더블유 앤 자스를 더욱 알렸으면 합니다."(배영준)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김예람

대단해요! 씨엔블루·카라

오리콘 일간차트 나란히 2·3위 신예 B1A4 싱글부문 2위 올라

한류 가수들이 일본 음악시장에서 좌상 공세로 K-팝의 건재를 입증했다.

28일 새 앨범을 출시한 씨엔블루와 카라, 새 싱글을 발표한 B1A4가 일제히 오리콘 차트 정상권에 이름을 올렸다.

씨엔블루는 일본 정규 2집 '왓 턴즈 유 온?'으로 하루 만에 2만6921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2위를 차지했다. 선두인 NHK 인기 드라마 '아마짱' 사운드트랙과는 불과 467장 차이로 주간차트에서 정상을 노려볼 만하다.

씨엔블루는 정규 1집으로 오리콘 주간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네 번째 싱글부터 지난달 31일 발표한 여섯 번째 싱글까지 세 장 연속 오리콘 2위를 차지하며 일본에서 톱 밴드로 자리를 굳혔다.

특히 이번 앨범의 11개 수록곡을 모두 멤버들이 직접 썼다는 점에서 대중성과 함께 음악성도 동시에 인정받았다. 정용화가 타이틀곡 '원 모어 타임'을 비롯해 7곡을 썼고, 이종현이 4곡을 썼다.

한류 걸그룹 선두주자인 카라는 일본 정규 4집 '판타스틱 걸즈'로 2만6183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씨엔블루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국내 정규 4집 출시 준비에 전념하느라 현지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확인했다.

이번 음반은 '걸즈 토크', '슈퍼 걸', '걸즈 포에버' 등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표한 소녀 시리즈 정규 앨범의 완결판이다.

신예 남성 아이돌 그룹 B1A4는 K-팝의 차세대 주자로 우뚝 섰다. 이들은 1년 만에 내놓은 일본 세 번째 싱글 '이게 무슨 일이야'로 싱글 일간차트 2위에 올랐다. 정상은 차지한 일본 인기 걸그룹 모닝구 무스메와는 큰 격차를 보이지만 하루 동안 2만5705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K-팝의 세대교체를 선언했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보르코시건 시리즈★ 명예의 조각들 6화 글·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스피카 'X언니' 1위 그 뒤 이효리 있었다

걸그룹 스피카가 'X언니' 이효리 효과를 톡톡히 봤다.

스피카는 9개월 만에 발표한 신곡 '투나잇'으로 음원차트 정상에 올랐다. 28일 발표한 이 곡은 29일 엠넷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데뷔 1년 7개월 만에 음악 관련 차트에서 처음 정상을 맛봤다.

또 벅스 2위, 소리바다 3위, 올레뮤직 1위, 네이버뮤직 4위, 다음뮤직 5위 등 다른 음원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성적을 거둔 데에는 이효리의 역할이 컸다. 이효리는 선곡부터 재킷 디자인, 뮤직비디오 제작, 프로듀싱을 도맡아 앨범 제작을 지휘했다. 작곡에는 이효리 5집 타이틀곡 '배드 걸즈'의 작곡팀 일부가 참여했고, 작사는 이효리와 스피카 멤버 보희가 함께했다.

앨범 준비 과정은 방송으로 소개돼 화제를 모았고, 이효리는 "뒤를 봐주는 언니라는 뜻의 'X언니'가 되겠다"며 스피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스피카는 이효리의 지인들 사이에서도 존재감 없는 걸그룹으로 방송에 소개됐지만, 이효리의 참여로 단숨에 인지도를 높였다.

음원과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은 비키니 차림으로 아찔한 매력을 뽐내는 등 이효리의 영향을 받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스피카는 30일 KBS2 '뮤직뱅크'에서 컴백무대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유순호기자

버벌진트 영화 '잡스' 홍보지원

힙합 대세남 버벌진트가 영화 '잡스'의 홍보 지원을 자청하고 나섰다.

버벌진트는 극중 영상들을 이용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노래 '우리 존재 화이팅'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혁신적인 음악으로 국내 힙합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그는 조용필의 신곡 '헬로'에 랩 피처링을 하는 등 새로운 도전으로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 노래는 청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뮤직비디오는 버벌진트 특유의 비트 있는 랩 멜로디 사이로 흐르는 젊은 시절 스티브 잡스의 모습을 담아 잡스의 뜨거웠던 청춘을 자세히 들여다 보게 만든다. /유순호기자

"크레용팝 싸이 이을 스타"

美 '굿모닝 아메리카' 소개

크레용팝이 미국 ABC의 대표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했다.

'굿모닝 아메리카'는 28일 방송에서 크레용팝과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이들을 차세대 K-팝 루키로 소개했다. 또 이들의 히트곡인 '빠빠빠'의 안무 '직렬 5기통 춤'을 언급하며 기존 걸그룹과 차별화된 콘셉트로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에 많은 패러디 영상이 등장하고 학생, 경찰, 군인 등 다양한 직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패러디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크레용팝 멤버 웨이는 많은 걸그룹이 내세우는 섹시 콘셉트가 아닌 코믹한 이미지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사회에서 일로 지쳐 있는 현대인에게 같이 뛰며 즐겁게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앞서 크레용팝은 빌보드 K-팝 칼럼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 매체로부터 "싸이의 뒤를 이을 스타"로 주목받았다. /유순호기자 suno@

8월 5주

엠카운트다운 TOP 10 순위

1위 EXO 으르렁

가수	곡	변동
크레용팝	빠빠빠	—
[illegible]	할 말 있어요	NEW
범키	갖고 놀래	NEW
f(x)	첫 사랑니	▼
2NE1	Do You Love Me	▼
샤이니	아는 사람 얘기	▼
비스트	Shadow	▼
제국의 아이들	바람의 유령	▲
브라운아이드걸스	Kill Bill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생방송 MnetMcountdown MnetMAMA

29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100일 선포보고회'에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한 개그우먼 신보라가 감사패를 받기 위해 늘씬한 각선미를 뽐내며 단상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 잠시만요, 보라 언니 계단 오르시고 행사 시작할게요! /조성준기자

육아·살림하는 아빠에 꽂혔다

방송가 관련 프로그램 봇물…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안방팬 유혹

아빠들의 육아와 가사 참여를 유도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지상파와 종편 할 것 없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MBC '일밤 – 아빠 어디 가'가 인기리에 방영중인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9~21일 '슈퍼맨이 돌아왔다'(사진)가 KBS2를 통해 선보인다.

정규 편성전 파일럿 형식으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아내없이 이틀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연예인 아빠들의 모습을 소개한다. 가수 이현우와 연기자 장현성,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 방송인 이휘재가 출연한다.

종편 채널 MBN도 이달 하순부터 비슷한 내용의 '아내가 사라졌다'를 방송중이다. 개그맨 최양락과 연기자 김승수, 감정평가사 이상문, 가수 조관우가 아내가 없는 동안 자녀들과 지내고 가사에 도전하는 과정을 관찰 카메라 형식으로 소개한다.

이밖에 SBS는 '스타부부쇼 자기야'의 포맷을 일부 바꾼 '자기야 – 백년손님'으로 사위들의 처갓집 적응기를 담아내고 있다.

잠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남성 가장들이 처월드 식구들과 부대끼며 겪는 해프닝을 통해 그동안 무심했던 가족 관계를 되돌아 본다는 제작 취지는 앞서의 프로그램들과 일맥상통하다.

이처럼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다 보니 표절 시비도 방송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베끼기 여부에 대해 '슈퍼맨'의 강봉규 PD는 "일상에서 가족내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를 조명한다. '아빠 어디 가'보다 다큐멘터리적인 요소가 더 있다"고 답했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야외에서 몸으로 부딪치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보다 제작비는 조금 들지만 이웃집을 엿보는 것처럼 소소한 재미는 더 뽑아낼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남성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요즘 사회 분위기의 변화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star bag

日 팬미팅 열고 노래선물

가수 성시경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팬미팅을 열었다.

이날 열린 팬미팅에서 성시경은 '제주도의 푸른 밤', '좋을텐데', '내게 오는 길' 등 자신의 히트곡들과 다마키 고지 등 현지 가수들의 노래를 불러 팬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그는 "TV 출연으로 무대에서 노래할 기회가 적었는데 정말 기쁘다. 앨범과 콘서트로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 낳아

쿨등신 미녀 연기자 한채영이 6년 만에 득남했다.

29일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한채영은 전날 오후 1시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다. 소속사는 "당분간 육아에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7년 투자회사 직원과 결혼한 그는 올 3월 KBS2 '광고천재 이태백'에 출연하던 중 임신 소식을 알렸다. /조성준기자

여름 여자의 손 왜 이리 푸석해

가을 입은 크로커다일레이디
배우 최지원이 여성 캐주얼 브랜드 크로커다일레이디의 스타일 화보를 통해 가을 여신으로 변신했다. 크로커다일레이디의 가을 컬렉션은 톤 다운된 블루, 카키다 그린 컬러로 트렌디함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끈적임 없는 핸드크림·자외선 차단제로 관리해야

여름철 가장 홀대받는 곳은 손이다. 평소보다 손을 자주 씻으면서 끈적인다는 이유로 핸드크림을 챙겨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강렬한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돼 겨울보다 건조해지기 쉽다. 뷰티업계 한 관계자는 "더운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가벼운 제형의 핸드크림을 사용하고 이왕이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함유된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뉴트로지나의 노르웨이전 포뮬러 패스트 업소빙 핸드크림은 뛰어난 보습력으로 영양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한다. 특히 산뜻한 사용감으로 끈적임 없이 스며든다. 빌리타 로즈빅타 뷰티 크림 핸드 & 네일은 수분 공급에 탁월한 로즈 쉽 오일 쉬어가 함유돼 촉촉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가꿔준다. 은은한 장미향도 오래가 여성들에게 인기다.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손도 빠르게 노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UV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뉴트로지나의 '에브리데이 핸드크림 프로텍팅 SPF25'은 바르는 즉시 UV 차단 보습막을 만들어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준다. 에뛰드하우스의 '핸드부케 리치비타민 핸드크림SPF15/PA+'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결을 개선해 손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준다.

◆심하게 건조할 때 SOS 팁

여름철 물놀이 이후 손의 극심한 건조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이땐 겨울에 사용하던 고보습 핸드크림을 충분히 바른 후 비닐장갑을 끼고 15분 정도 흡수시키면 어느 정도 건조함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후에는 여름용 핸드크림을 자주 덧발라 보습을 유지해줘야 한다.

/이지현기자 ssw@metroseoul.co.kr

바바라 팔빈 빈폴 입는다

타라 페리와 광고 모델

제일모직의 캐주얼 브랜드 빈폴은 유명 모델인 바바라 팔빈과 타라 페리를 가을 겨울 시즌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바라 팔빈은 제2의 미란다 커로 불리며 빅토리아 시크릿과 샤넬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타라 페리는 음악가 겸 모델로 디올과 버버리 등의 모델로 활동했다.

빈폴 측은 "세계적인 패셔니스타를 모델로 선정해 새롭고 품격있는 클래식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빈폴 측은 바바라 팔빈과 타라 페리의 2013년 가을 광고를 통해 이번 시즌 새로운 트렌치코트와 가방을 선보였다. 바바라 팔빈은 빈폴 레이디스와 액세서리의 모델로, 타라 페리는 빈폴 맨의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이지현기자

작지만 특별한 하우스웨딩 어때?

팔래스호텔 하우스웨딩페어

서울팔래스호텔이 29일 2013 하우스웨딩페어를 개최했다.

서울팔래스호텔의 1층 로얄볼룸과 12층의 스카이볼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팔래스호텔만의 차별화된 웨딩 데커레이션 등 최신 웨딩 스타일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또한 서울팔래스호텔만의 특별한 퓨전한식코스요리를 스파클링 막걸리와 함께 시식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2부에서는 성악 듀엣 등의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명품인생 만들기' 강의로 잘 알려진 송진구 교수를 초청, 명품 가정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했다.

성자영 서울팔래스호텔 연회판촉 팀장은 "특색 있는 웨딩홀 데커레이션과 전문 웨딩 디렉터의 1대1 맞춤 상담 등을 통해 평생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하우스웨딩을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2136-6869

/글·사진=손진영기자

뉴스 & 뉴스

'스킨푸드 네일 칵테일 바' CGV영등포에 운영

● 스킨푸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 CGV영등포에서 네일 팝업스토어 '스킨푸드 네일 칵테일 바'를 운영한다. 당일 영화티켓을 소지한 관람객 중 부스를 찾아와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면 무료 네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일 200명씩 선착순 마감된다. 또한 네일 칵테일 바에서 자물쇠의 4자리 비밀번호를 알아 맞추면 '네일 시크릿 박스'를 증정한다.

더샘, '글로벌 에코 플래그숍' 명동 사보이점

● 화장품 브랜드숍 더샘이 새롭게 바뀐 브랜드 콘셉트 '글로벌 에코'와 BI를 적용한 플래그숍 '명동 사보이점'을 공개했다. 이번 플래그숍은 브랜드 컬러인 글로벌 에코 레드와 나무 소재를 사용해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강조했다. 또한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동선과 시선에 맞춰 제품을 배치했다. 더샘은 순차적으로 전국 매장에 '글로벌 에코' 콘셉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문의 080-080-7500

'더(THE) 놀부보쌈' 1호점 놀부보쌈이 26년 만의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더(THE)놀부보쌈' 종로타워 직영 1호점을 오픈했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에서 열린 '더(THE)놀부보쌈' 브랜드 론칭 기념 행사에서 모델들이 더(THE)놀부보쌈의 대표 메뉴인 가마솥 보쌈을 선보이고 있다. 더(THE)놀부보쌈은 세련된 매장 분위기와 다양한 메뉴,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존 보쌈 전문점과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턱뼈 괴사증 진단기준 마련

이대목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선종 교수팀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 관련 턱뼈 괴사증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턱뼈 괴사증이란 골다공증 및 암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들이 치아 발치, 임플란트 치료를 할 경우 골노출이 생긴 후 치유가 안 되고 턱뼈가 괴사되는 난치성 질환을 말한다.

김선종(사진) 교수와 김진우 전임의는 그동안 이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골대사인자들을 비교한 결과 종합적인 골대사인자의 분석을 통해 위험환자군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을 만들었다.

/유재철기자

더운 추석 내복이 운다

속옷업체들 특수 사실상 포기
실용적인 양말 세트로 승부수
외출복 겸용 이지웨어도 기대

예년보다 열흘 가량 빠른 추석에 늦더위까지 겹치면서 대표적인 한가위 선물인 '내복'이 외면받고 있다. 속옷업계 한 관계자는 "내복을 선물하기에는 아직 날씨가 더운데다 경기불황으로 양말, 이지웨어 같은 저렴하고 실용적인 선물을 찾는 고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쌍방울은 올해 추석 가을·겨울 상품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쌍방울 관계자는 "불경기인 요즘 1만원대 저가 상품이 추석 선물용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아 인기"라고 말했다.

BYC 역시 올 추석에는 고객들이 내복보다 양말을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다음달 4일까지 양말과 수납함을 묶은 '양말세트'를 할인 판매한다.

중소취락업체와 손잡고 3만여 세트를 준비했다. 판매 가격은 여성용 세트(8켤레)가 1만2000원, 남성용 세트(6켤레)가 1만5000원이다. 롯데마트 측은 "시중가보다 25% 저렴한 수준"이라며 "함께 있어주는 수납함은 양말 10켤레를 수납할 수 있는 크기로 칸이 나눠져 있어 정리하기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실용적인 이지웨어도 인기

남영비비안은 실내복으로 입다가 가까운 거리로 외출할 때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이지웨어' 판매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과거에는 추석 선물로 파자마를 많이 찾았지만,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이지웨어가 파자마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 특히 이지웨어는 티셔츠와 바지 등 단품으로도 판매하고 디자인이 세련돼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남영비비안 관계자는 "아직 날씨가 덥고 고객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번 추석에 내복 특수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좀 더 추워져야 내복 판매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pak@metroseoul.co.kr

인천 송도에 유럽형 테마 쇼핑몰 문연다

NC큐브 커낼워크점 개장

이랜드가 신사동 가로수길과 홍대의 개성 있는 카페와 다양한 콘셉트의 상점·거리 공연을 한데 모은 테마 쇼핑몰을 선보인다.

이랜드리테일은 30일 인천 송도에 유럽형 테마 쇼핑몰 'NC 큐브 커낼워크점'을 개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면적 5만4726㎡ 규모의 커낼워크 점에는 800m 길이의 인공 수로를 중심으로 상가가 배치됐다. 상가에는 미쏘·스파오·슈펜 등 이랜드의 SPA 브랜드, 나이키·아디다스·스포츠·리복 등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편집숍 등 90개 매장이 들어선다.

50여 개의 식당·카페와 휴게 공간도 마련되며 주말에는 뮤지컬 갈라와 밴드 공연 등 문화 행사가 열린다.

커낼워크 점은 개장을 기념해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머그잔 등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박지원 기자

11번가에선 다이소 더 싸요

내달 1일까지 할인판매

오픈마켓 11번가는 다이소 제품을 온·오프라인 최초로 할인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까지 세탁바구니·정리함·우산 등 생활밀착형 상품을 최대 13% 저렴하게 판다.

다이소가 11번가에 직접 입점해 단일 브랜드 최초로 5000여 개 상품을 내놓는다. 다이소는 전체상품 중 절반 이상이 1000원 균일가 생활용품점이다. 일본 다이소 산업과는 별개인 순수 한국 기업으로 정리·수납, 인테리어, 문구용품 등 다양한 상품군을 취급한다.

11번가는 다이소의 입점을 기념해 '시스템박스 2단 서랍장(2850원)', '옷걸이 4개세트(900원)', '정리바구니(900원)' 등 오프라인 인기상품을 11% 저렴하게 내놨다.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한다.

/박지원 기자

CJ올리브영·GS왓슨 '반값할인'

CJ올리브영과 GS왓슨 등 드러그스토어들이 '반값 할인'에 나선다.

CJ올리브영은 다음달 4일까지 'CJ올리브영 세일'을 실시하고 화장품과 헤어·바디용품 등 8900여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브랜드 별 할인 폭은 고운세상·로열네이처 등이 50%, 토레얄·메이블린 등은 40%, 닥터자르트 세타펠 등 30%다.

남자를 위한 스킨케어 브랜드 'XTM 스타일 옴므'와 올리브영이 단독 론칭한 일본 아이메이크업 브랜드 '베르사이유 장미' 제품도 2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같은 기간 GS왓슨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GS왓슨은 한주일 동안 수려한·이자녹스·로레알 등 100여개 인기 브랜드의 5000여 개 품목을 최대 반값에 선보인다. 특히 시즌오프 행사로 여름 제품을 최저가에 제공하고 추석 선물용 화장품 세트와 향수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아이파크백화점, 구매금액 10% 상품권 증정행사

아이파크백화점은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만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29일 밝혔다.

아이파크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상품권 행사는 대개 구매금액의 5% 수준에서 진행됩니다"면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 결제·체크카드·신용카드사별 제한 없이 모든 결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는 카드사별로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주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어라운드 더 코너 '홍대점 오픈' LG패션의 라이프 스타일 & 패션 멀티 스토어 '어라운드 더 코너'가 지난 28일 홍대에 두 번째 스토어를 오픈했다. 홍대점은 낡은 주택을 개조해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재단생했다. 미국 스트리트 브랜드 '리즈 플로킹'과 'SSUR'을 비롯해 프랑스 스트라이프 티셔츠 브랜드 '오르시발' 등 5만~20만원대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사진은 어라운드 더 코너 홍대점 내부 모습.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ould you help me lift this heavy box? 부탁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Hello. My name is Brad Johnson. 쿠퍼 씨에게 제가 여기 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B Of course. Could you please wait here for a moment?
A Sure, thank you. Oh, there's Mr. Cooper.
C Hi, Brad. By the way, Susan, 이 서류들을 회의에 가져가요, 그래 줄래요?
B Yes, sir.

정답 Would you please tell Mr. Cooper that I am here? / take these documents to the meeting, will you please?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2

생생영어팁

▶ Would you mind feeding the cat for me?
저 대신 고양이에게 먹이 주시면 안 될까요?

Would you mind -ing?는 Do you mind -ing?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대개 Do you보다 Would you로 물었을 때 더 예의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당신은 ~하는 것을 꺼려합니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호적으로 '아니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려면 No, not at all 등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또는 Sure, no problem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 I'm afraid I do라고 하거나 I'm sorry, but I do mind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a/an & the

▶ 부정관사 a/an과 정관사 the

1. 부정관사 a/an은 대화중 꼭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적인 명사 앞에 온다.
I have a pet. 저는 애완동물이 하나 있어요.
2. 정관사 the는 상대방도 나도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할 때 쓰는 말로,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명사 앞에 쓸 수 있다.
How was the traffic this morning?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어땠어요? (오늘 아침 교통 상황을 의미하므로 the)

▶ 핵심문법 확인학습_우리말을 보고 빈칸을 채우세요.

1. 아침에 고양이 한 마리를 봤어요.
I saw ______ cat in the morning.
2. TV 좀 켜줄래? Can you turn on ______ TV?
3. 나는 언젠가 수입차를 살 거야.
I will buy ______ imported car someday.

정답 1. a / 2. the / 3. an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According to the *Harton Fashion Chronicle*, many designers ______ green and brown fabrics for their autumn collections this year.
(A) to use (B) are using
(C) had been used (D) are used

02 Ms. Cho is not only a good public speaker ______ also a talented writer.
(A) both (B) if
(C) nor (D) but

01. 「하튼 패션 크로니클」에 따르면 많은 디자이너들이 올 가을 컬렉션에 녹색과 갈색의 천을 사용하고 있다.
해설 문장의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빈칸 뒤에 목적어 green and brown fabrics가 있으므로 능동태인 (B) are using을 쓴다.
어휘 fabric 옷감, 천, 직물
정답 (B) are using

02 조 씨는 훌륭한 연설가일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해설 not only와 짝을 이루어 'A뿐만 아니라 B도'를 의미하는 상관접속사인 but also를 쓴다.
어휘 public speaker 연설가 talented 재능 있는
정답 (D) but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3 Respond to questions

4. 5번 질문 유형 파악하기 (15초 답변)

빈도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Q When do you usually eat out with your family? 당신은 가족들과 주로 언제 외식을 합니까?
A [대체 내용 언급]
It's usually when a family member has a birthday. 주로 가족의 생일날 외식을 합니다.
[이유 언급]
Birthdays are special days, so we go out to celebrate at a fancy restaurant. It is very nice to have a family gathering in a different atmosphere once in a while.
[illegible]

When 질문에 대해서는 [illegible] 15초라는 시간을 채우도록 한다. [illegible] usually와 같은 표현과 함께 [illegible] 답한다.